

『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해남 』

지리교육과 06학번 류보경

1. 땅끝 해남



《해남군 행정구역도》

지난 7월 27일 ‘유인촌의 문화체험 우리땅 걷기’가 해남에서부터 시작되면서 해남은 또 한 번 땅끝으로서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심어주었다.

해남은 전라남도의 남서쪽 끝에 위치하며 886.72 km²로 전국토에서 1.0%, 전남도의 8.9%를 차지하는 전남에서 가장 큰 군이다. 남서쪽의 끝이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해남의 끝 토말(땅끝)은 우리나라 육지의 끝이기도 하다.

1) 수리적 위치

극동	동경 126°44'10"	북위 34°27'10"	북일면 내동리
극서	동경 126°16'10"	북위 34°39'20"	화원면 화봉리
극남	동경 126°31' 3"	북위 34°17'40"	송지면 갈두리
극북	동경 126°17'20"	북위 34°45'10"	화원면 매월리

2) 관계적 위치

전남의 서남단에 돌출해 있는 해남은 서북쪽으로 뻗은 화원반도, 산이반도와 남쪽으로 뻗은 해남반도와 내륙부로 이루어져 동쪽은 강진군, 동북쪽은 영암군과 강진군, 동남쪽은 완도군과 접하고 있으며 서북쪽으로는 진도군과 목포시에 접하고 있다. 또한 땅의 모양이 반도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남군에 속한 13개면은 육천면을 제외하고 모두 바다와 닿아 있다.

2. 해남군의 자연환경

1) 지리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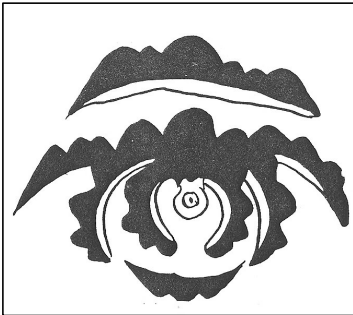
해남군은 한반도의 서남쪽 끝에 위치한 전남 최대의 군이며, 3면이 모두 바다인 반도이다. 따라서 옛날부터 이곳은 영산강 유역의 문화요소들이 파급되거나 형성되는 배경이 되거나 반도의 중심세력이 전파되는 길목이 되었다. 크게 보면 서남부를 경유하는 해로가 중국-한반도-일본을 연결한 문화이동로였다는 점에서 다양한 문화적 성격이 주목되는 곳이다.

또한 화원반도를 중심으로 리아스식 긴 해안선³⁵⁾을 갖고 있어 화원반도와 영암군을 잇는 영산강 종합개발사업으로 농경지 확장의 여지가 많은 곳이다.

해남의 동북부지역은 두륜산, 흑석산 등이 있어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중부 및 서남부는 평야지대로 간척지, 양식장, 염전 등이 이어진다. 해남읍은 뒤로 금강산, 좌로 덕음산, 우로 남각산 등에 둘러싸인, 풍수지리에서 보면 옥녀탄금형으로 서쪽이 해창만에 면해있고 서해와 연결된다.

과거 한반도의 남부는 격렬한 화산-심성활동 지역이었으며, 해남 또한 여기에 속해있기 때문에 지질은 화강암과 변성화강암이 많고, 이외에도 응회암과 분암 등 복잡한 지질구조를 이루고 있다.

✓ 옥녀탄금형의 형국 때문에 토호들의 텃세가 드셨다??



《옥녀탄금형》

옥녀탄금형이란 풍수지리에서 옥같이 깨끗한 여자가 거문고를 타는 형국이라는 뜻으로 산의 모양을 몇 가지로 나누어 부르는 이름의 하나이다. 바로 해남읍의 지형을 사람들은 옥녀탄금형이라고 말한다. 삼산면과 현산면 경계에 병풍산이 있고, 이산과 해남읍 중간이며 읍과 삼산면 면계를 이룬 곳에 금산이 있으며, 해남읍 뒷산 금강산에 미암이 있다. 즉 금강산이 옥녀고, 미암은 그 옥녀의 눈썹이며, 멀리 병풍을 둘러치고 비파를 타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산들이 호위하고 있는 듯한 넓은 들판에 진산인 금강산을 뒤로 하고 해남고을이 자리하고 있는 이러한 좋은 형국 탓에 해남은 예로부터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고 토호들의 텃세가 드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35) 지반이 침강하면 해안선의 출입이 심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서해안이나 남해안과 같이 해안선의 출입이 특히 심한 해안을 리아스식 해안(ria coast)이라 한다. 전남의 다도해의 경우 리아스식 해안의 세계적인 예로 꼽힌다.

조선 말엽 해남고을 현감들은 이곳 토족인 연안이씨와 여흥민씨 두 성씨의 지나친 세도 때문에 이 두 씨족 시중들고 문안드리느라 정사를 제대로 못 보았고 이들 비위에 거슬리면 곧 파직을 당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다들 이곳 현감이 되는 것을 꺼렸다. 그러던 중 1782년 김서구란 사람이 현감으로 오게 되었다. 그는 도입하자마자 고을 뒷산인 금강산에 올라 읍지형을 살펴보았다. 금강산을 주작으로 보고 사방을 살피니 우슬치가 청룡이고 조형이 백호요 금산과 읍 사이에 산이 하나 있는데 이는 분명 현무라. 그는 해남사람들이 거센 것은 이 지형 때문이라 판단하고 매운 마늘같이 생긴 호산의 상봉을 삼척(尺) 삼촌(寸)씩 깎아내리고, 소의 기를 죽이기 위해 소의 정강이인 우슬재도 깎아내렸으나 1년4개월만인 1783년 6월에 쫓겨나고 그 후임 김처승도 1년 6개월만에 쫓겨났다.

해방 뒤 이곳 해남에는 외지에서 들어와 살면 텃세를 받지 않고, 상권을 쥐고, 관리들도 모함을 받는 일이 적어져 사람들은 김서구 현감이 지기를 빼고 지형을 바꿨기 때문이란 여론이 일어 10여년 전 노인당이 중심이 되어 호산 산봉우리를 높이는 공사를 했으나 우슬치는 도로확장사업으로 더 깎여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2) 기후

해남의 평균 기온은 13.3℃, 최한월평균 기온은 섭씨 0℃ 이상으로 겨울철이 온난하여 적설일수가 적은 기후특성을 나타낸다. 여름에는 남동계절풍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하며, 겨울은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한랭건조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지만, 해안선 일대는 해양성 영향으로 내륙에 비하여 온난한 기후를 나타낸다. 3면이 모두 바다인 해안선을 끼고 있어 난류와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비교적 고온습윤한 기후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간 강수량은 1305.8m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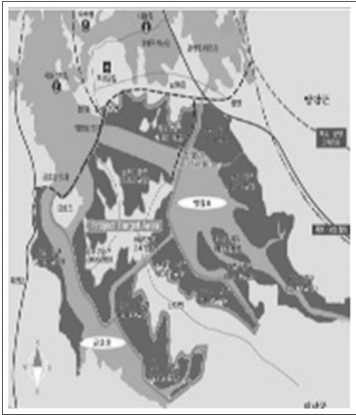
3) 식생

해남 두륜산은 난대성 상록활엽수가 숲을 이루고, 온대지방에서나 자생하는 소사나무가 대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온대남부림의 대표적 극상³⁶⁾식물인 개어서나무가 30%의 출현을 보여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지난 67년 식물학자 박만규 박사의 조사에서 831종, 91년 조선대 약대 정명현 교수의 조사에서 870여종으로 밝혀진 식물상은 지리산을 제외하고 남도에서는 가장 풍부한 편에 속한다.

36) 식물 공동체 발달의 최종 단계이다. 식물군락의 천이에서 군락은 높은 곳에서 더욱 높은 곳으로 소(疎)에서 밀(密)의 상태로 변해가며, 결국 다른 식물이 침입할 수 없는 안전한 상태를 장기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갯벌, 간척사업, 그리고 변화



《해남군 간척지 현황》

출처 - 해남군청 홈페이지
 간척지 - 영암Ⅱ, 삼호, 마산, 산이Ⅰ·Ⅱ, 금호Ⅰ·Ⅱ, 화원Ⅰ, 해남광장, 금호도 (진한색으로 표시된 부분)

간척지(tidal mud-flat)는 조차가 큰 해안에 넓게 형성되는 해안퇴적지형으로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에 주로 분포하며 특히 경기만 주변에 대규모로 발달하고 남쪽으로 갈수록 단위면적이 적어진다. 땔(mud)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갯벌의 경우 섬 뒤의 해안이나 육지로 깊숙하게 들어온 만에 분포한다.

해남 일대의 경우 해남군과 강진군의 육지해안, 완도북측과 인접한 해남군 육지해안 등지에 비교적 넓은 갯벌이 분포한다. 이곳에는 과거 도요류, 오리류를 비롯한 다양한 수조류가 도래하였으나 금호호방조제, 영암호방조제 등이 완공되면서 대부분의 갯벌이 거대한 간척호수와 농경지로 바뀌면서 이 지역 조류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즉 도요류의 주 서식처인 갯벌이 소실됨에 따라 도요류의 도래³⁷⁾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대신 간척호수를 중심으로 한 오리류의 도래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깨끗한 물(간척호수), 은신처(갈대밭), 먹이(농경지)등 월동지로서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덕분에 해남은 우리나라 최대의 철새도래지이자 세계적 희귀조인 가창오리의 최대 월동지로서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입증 받았다.

✓ 간척사업으로 인한 변화 산이반도

산이반도는 현재 영암방조제와 금호방조제의 완공으로 생겨난 영암호와 금호호, 두 개의 간척호수에 둘러싸인 땅이다. 과거 이곳은 해남에서 목포 쪽 바닷가로 가늘게 뻗어나간 오지였지만 70년대 후반 야산 개발이 이뤄지면서 농경지가 조금 조성되었고 방조제 완공 후에는 광활한 간척지까지 생겨나 지금은 발농사가 이곳 주민들의 주업이 되었다.. 특히 한겨울에 심는 월동배추는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로 팔려나가 연간 백억원의 소득을 안겨다준다. 특히 해남의 겨울배추는 따뜻한 해양성 기후로 인하여 겨울철에도 얼지 않고 배추 맛이 그대로 남아있어 싱싱한 김치를 담글 수 있으며, 섬유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피부미용과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37) [명사] 1. 물을 건너움. 2. 외부에서 전해져 들어옴.

《참고문헌》

- 한국문화유산답사회 / 1995 / 답사여행의 길잡이 5 전남 / 돌베개
- 권혁재 / 2006 / 지형학 제4판 / 법문사
- 한국관광공사 / 2001 / 2001년 한국관광공사추천 가볼만한 곳 100선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리정보연구회 / 2004 / 한국아카데미

《참고사이트》

- <http://blog.naver.com/rbtnrla/140014685708>
- <http://kr.blog.yahoo.com/jhna1655/3260>
- <http://www.realmani.com>
- 해남군청(<http://www.haenam.go.kr>)
- 해남군 문화관광페이지(<http://tour.haenam.go.kr>)
- 기상청(www.kma.go.kr)